

구라보의 이브리크 개발에 얹힌 이야기 <3/3>

구라보 영업 통괄부(統括部) 마케팅부 주임 부원(主任 部員)인 ‘우치다(内田淳)’는 “처음으로 그래프트 중합 가공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이것은 경쟁에서 이겼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말했다.

도쿠시마(徳島) 공장에 연속 가공의 근본 기계를 설치하고 전자선 그래프트 중합 가공의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경제 산업성(經濟 産業省)의 지역 신생 컨소시엄 연구 개발 사업(地域 新生 consortium 研究 開發 事業)은 2004년도까지가 그 기한이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는, 구라보 섬유 사업부의 프로젝트로 옮겨졌다. 이때부터 기술 연구소와 기술 부에, 마케팅부가 참가하여 실용화된 체제가 새로 생겼다.

마케팅부의 우치다는 “이것이 성공하면 세상에 하나 뿐인 상품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그 당시를 회상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로 간단하지는 않았다.

이 무렵, 먼저 ‘흡습 발열(吸濕 發熱), 항균(抗菌), 소취(消臭)’의 3가지 가공이 완성되었다. 그래프트 중합은 가공제의 노하우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닛카 화학(日華 化學)이 큰 역할을 하였다. 구라보는 지금도 닛카 화학으로부터 많은 가공제를 구입하는 등 관계가 깊다. 이 신뢰 관계도 플러스로 작용하였다. 2008년 3월에는 전자선 그래프트 중합 가공에 관한 기술을 발표하였다. 드디어 실용화의 최종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2008년 6월에, 도쿄에서 전자선 그래프트 중합 가공 소재 ‘이브리크(EBRIQ)’가 발표되었다. 이 소재의 이름은 전자선(Electron Beam)의 머리글자 EB와 포지(布地)라는 뜻의 Fabric의 ric을 합쳐서 만든 단어이며, 단어의 끝에 있는 C는, IQ와 같이 지능 지수 등의 지적인 소재의 뜻이 담긴 Q로 바꾸었다. 면(綿) 등 천연 섬유를 분자 수준으로 개질하여 기능성을 덧붙여준다는 천연 섬유 분야에서 기다리고 바라던 대형 상재(大型 商材)이다. 그만큼 새로운 소재에 대한 구라보의 기세는 매우 강하였으며, 화려한 발표 기자회견도 있었다.

그런데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발표하고 나서 고객은 이브리크에 관하여 흥미가

넘쳐 흘렀다. 그러면서도 이브리크의 기능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었다. 단순히 기능성을 고객에게 어필하기만 해서는 시중에 있는 기능 가공 제품과 차별화가 어렵다는 난관에 직면하였다. 혁신적인 가공 기술이기 때문에, 그 혁신성을 어떻게 고객에게 어필하느냐는 부분에서 역시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당사에게는 상재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우치다의 판단은 바른 말일 것이다. 이제까지 면방적 등 천연 섬유를 주력으로 하는 소재 메이커는, 기능 폴리머(機能 polymer)나 섬유 원액 속으로 이겨 넣는 방법을 쓰는 합섬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기능 소재라는 분야에서 뒤로 처지기 쉬웠다. 그런데 단 한줄기의 물줄기인 이브리크로 물 흐름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과의 쇼엔(勝圓), 기술 연구소의 오지마(大島)도 ‘이제부터가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기능 내용(機能 内容)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접촉 냉감(接觸 冷感)도 라인 업(line up)에 끼어들었다. 현재는 저인 함유율(低燐 含有率)에서 난연(難燃)·방염(防炎) 가공도 도전 중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유니폼 용도 등에서도 더욱 가능성이 커진다. 이브리크의 개발은, 이제부터가 진짜로 중요하고 어려운 고비가 될 것이다.♣